

# 범여권 대통합 신당 윤곽

## 당 정강·정책 마무리 작업...김효석-정균환-이낙연 체제 유력

〈원내대표〉 〈최고위원〉 〈대변인〉

오는 5일 출범하는 범여권 대통합 신당이 지도체제와 당원제도, 정강·정책 등에 대한 막판 마무리 작업에 나지고 있다. 범여권 신당의 명칭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잠정결정됐다.

특히, 김효석 의원(장성·담양·곡성)은 대통합 신당의 원내대표를, 정균환 전 의원이 최고위원을, 이낙연 의원(영광·합평)이 대변인을 맡아 대통합 신당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범여권 대통합 신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신당 창준위는 3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와 정강·정책, 당명 등 5일 창당대회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신당의 지도체제는 1명의 대표 최고위원을 포함, 7명의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대선 정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대표에게 강력한 권한이 있는 '원톱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후문이다.

창준위는 미리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내정한 뒤 5일 창당대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당 대표는 정치권 인사보다는 개혁적이고 중랑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외부 인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백낙청 서울대 교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이다.

최고위원은 공동 창당 정신에 맞춰 시민사회와 범여권이 나눠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탈당과 자분으로는 정균환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대철 전 의원과 김덕규 의원 등이 최고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세력에서 2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선출은 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서 결정하며 김효석 의원이 유력하다. 김효석 의원은 중진급 의원들은 물론 조·재선 의원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원내대표로 무난히 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선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다른 반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망이다. 당초 사무총장으로 거론됐으나 신당 창당 이후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변인의 역할이 그 어느 자리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실상 강제 징집됐다.

사무총장은 실무형 인사가 맡을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조·재선 그룹에서 임명될 전망이다.

창준위는 2일 오후 공동창준위원장단 회의에서 신당의 명칭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잠정결정하고 3일 중앙위 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제1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2일 송민순 외교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미시시피강 다리 붕괴

## 차량 수 십대 강 추락...최소 9명 사망·20명 실종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1일(현지 시간) 퇴근길 러시아워에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돼 최소한 9명이 죽고 20명이 실종됐다.

미네아폴리스 스타 트리뷴은 주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소 9명이 죽고 20명이 실종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현지 신문들은 60여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전 클라크 현지 소방서장은 7구의 시신을 건져냈으며 시신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R.T.라이백 미네소타 시장은 "이번 사고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라이백 시장은 "50여대의 승용차를 찾아

낸 가운데 지금도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당시 교량 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수 백여명이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사고 당시 50~100대의 차량이 교량을 지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과 CNN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 강을 건너 미네아폴리스 도심과 연결되는 주간고속도로 35 W의 일부인 4차선 교량이 이날 오후 6시5분경 붕괴되면서 수십대의 차량들이 강에 추락했다.

붕괴 현장에는 수십톤의 콘크리트가 무너

져 내렸고 일부 트럭은 충격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 화재까지 발생했다. 구조 요원들은 보트 등을 동원, 생존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강으로 가라앉지 않은 교량의 잔해에 갇힌 상태여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1967년 건설된 140m 길이의 이 교량은 2004년 미네소타주 교통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하루 20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교통국은 9개월 전부터 이 교량에 대한 노면 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으나 교량의 구조와 관련된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카이=연합뉴스

# 北-美, 6자회담 비핵화방안 계속 추진

미국과 북한이 1일 밤 마닐라에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회의 개막에 앞서 잠시 접촉을 갖고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필리핀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북한 소식통 등을 인용, "ARF 참

석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대신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박의춘 외무상을 만나 잠시 양국간 현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이날 회동은 지난달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시설 폐기를 실천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만남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시설 폐기를 위한 실천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북한 소식통은 밝히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 지방의원들 '시대 흐름' 역행?

## 민주당 반통합과 잇단 '당 사수' 성명에 비판 목소리 높아

통합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광주시원에 이어 광주지역 구의원까지 나서 대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고 사실상 '당 사수'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합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5개 지역 구의원 37명은 2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합 정당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정통성·정체성·역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인사들과 정치세력은 즉각 사과하라"는 내

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열린우리당을 해체해야 하며 잡탕식 대통합 세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중심의 중도개혁대통합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 13명과 전남도의원 24명은 지난달 31일과 30일 사실상 민주당 사수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이들 성명의 주요 내용은 범여대통합신당에 이미 참여하거나 주장한 인사들은 민주당 파괴 세력이며 민주당 중심의 대통합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건없는 대통합을 역설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정치

세력은 민주당 파괴 세력이고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는 대통합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의 잇단 성명에 대해 광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들로부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저버린 소아적 정치 행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대통합 시민연대 관계자는 "민주당 사수파는 이 상황이 유지되면 3년 후 민주당의 간판을 달아 쉽게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합이 되면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올 연말 대선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열안이 돼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특강 8월 1일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361-811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529-8111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KT 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KT 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KT 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SK인생보험**

SK인생보험

SK인생보험

SK인생보험